

■ 기획/ 차례, 집에서만 지내는 시대 지났다

을 한가위 사찰서 지내볼까

서울 정혜사 신도인 반야심(55)보살은 15년째 사찰에서 명절을 지낸다. 명절이라고 모일 가족도 많지 않은 까닭에 사찰에서 합동차례를 지내기로 결정한 뒤로는 매년 절에서 명절을 쉰다. 포교당에서 신도들과 함께 사찰을 찾는 이들의 공양을 준비하고, 차례를 올리는 일이 이들 가족들에게는 익숙한 명절풍경이다.

서울 불광사 신도인 실상화(64)보살은 사찰합동차례 덕분에 명절부담을 덜었다. 맘먹느니로 명절이면 아들, 손자녀, 며느리에 작은 집 식구들까지 대가족을 맞

증가하는 합동차례객의 수치는 도심사찰에서 쉽게 확인된다. 서울 조계사도 매년 설과 추석 합동차례를 신청하는 신도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오전에 두 차례 합동차례를 거행하는 봉은사는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불광사도 마찬가지다. 2010년 이후 해마다 5~10%씩 합동차례에 동참하는 신도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동침사 수치만큼 실제 사찰을 찾는 신도의 숫자가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눈여겨볼만 하다. 사찰에 차례 관련 모든 의식을 맡기고, 가족들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추석은 물론 명절 합동차례에 동참하는 불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상이나 제사에 대한 의식이 젊은 세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고, 명절 연휴기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려는 의지가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용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명절 제수용품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40~50만원이 소요되지만, 합동차례 비용은 10만원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특히 명절기간 내내 강도 높은 가사노동을 감내하는 여성들의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도 명절을 사찰에서 지내는 가정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절을 쇠기 위해 절을 찾는 불자들을 맞는 사찰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합동차례를 계기로 사찰을 찾는 비불자들을 위해 다과를 마련하거나 알기 쉬운 해설로 범회를 진행하면서 이해를 돕기도 한다. 또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서는 합동차례를 지내는 동시에 송편도 만들고, 전통놀이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한솔종합복지관 관장 가섭스님은 사찰에서 합동차례를 올리는 불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 사회적 인식변화의 결과로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현대인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실행의 모습도 변화하는데, 전통을 잊되 현실에 맞는 능동적인 실행변화는 당연한 결과”라며 “사찰이 합동차례를 지내는 것은 한편으로 불교가 우리시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으로 신도와 가족들이 편안하게 범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찰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편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제수용품 비용도 4분의1 정도
합동차례 동참자 해마다 증가
명절의식 일체 사찰에 맡기고
가족들과 여가 시간 즐기기도

각 사찰 명절손님맞이로 분주

아야 한다는 걱정에서 명절증후군까지 앞왔지만, 3년 전 절에서 합동차례를 지내면서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다. 또 사찰에 다니지 않는 다른 가족들도 이날만큼은 함께 범회에 동참해 그것만으로도 즐겁다고 한다. 오전10시 예불을 시작으로 12시까지 합동차례를 마치고 점심공양까지 하면서 음식 만드는 수고도 줄었다.

한국의 명절문화가 달라지고 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귀경길에 올라 가족을 만나고 차례를 올리지만, 한편으로는 명절 연휴 해의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가족과 여행지에서 차례를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더 이상 화제가 되지 않는 요즘이다. 유교적인 제사의식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차례를 반드시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찰에서도 달라진 명절풍경을 느낄 수 있다. 설이나 추석 때 사찰에서 단독차례 또는 합동차례를 지내는 신도들의 숫자가 매년 늘고, 연휴기간 사찰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가족들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원폭 비극,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한중일 불교대회’ 한국 대표단

히로시마서 한인희생자 위령제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 불교계가 이역만리 타국에서 원폭으로 희생된 영가들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4일 일본 히로시마평화공원 내 한국인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히로시마 원폭 한인희생자 추모 위령제’를 봉행했다. 위령제는 제1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일본대회를 하루 앞두고 한국불교방문단 자체 행사로 진행됐다. 위령제에

는 한국불교 방문단 100여 명을 비롯해 서장은 일본 히로시마 영사와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히로시마현 본부 심승의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선조들의 넋을 기렸다.

히로시마는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도시다. 일제강점기 말인 1945년 8월 전쟁 종식을 위해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70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조선인 피폭자는 히로시마 5만명, 나가사키 2만명 등 전체 피폭자의 10%인 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죽음도 4만명에 달한다. 생존자 가운데 2만3000여 명이 남한으로 귀국했지만 피해는 되돌림되고 있다. 2013년 기

준으로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대는 2633명이 생존해 있으며, 원폭 피해 2~3세대 약 1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위령제는 한국불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서 원폭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불교계 차원의 원폭피해자 지원은 합천평화의집이 주관하는 위령제가 유일했다. 위령제에 참석한 한국불교 방문단은 원폭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은 “이 땅에 머무시는 영령들이시여, 광복 70주년, 잊었던 그대들의 애통함을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며 “이 자리의 한국불교 대표단은 역사의 엄정하고 올곧은 가르침에 따라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정진 또 정진하며 수행자의 길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장은 일본 히로시마 총영사는 “고국의 고승 대덕들이 여러분을 서방정토로 천도하기 위해 불원천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다”며 “고향산천의 반가운 반야심경 독경 소리를 들으시고 식민지 서러움과 원폭의 고통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령제에 참석한 한국 방문단도 한 마음으로 극락왕생과 원폭피해자 지원에 마음을 모았다. 종단협 부회장 회장정사(진각종 통리원장)는 발원문을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늘의 위령제를 계기로 생존 피해자를 돕고 치유할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로 상보

일본 히로시마=엠타규 기자 che11@bulgyo.com

지진으로 무너진 네팔 학교 다시 세운다

지구촌공생회, 스무고개 프로젝트

오지에 교육·주민공간 20곳 건립

지구촌공생회가 지진으로 무너진 네팔 학교를 다시 세운다. 국제개발협력단체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스님)는 지난 15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네팔 산간 오지마을 신두팔촉 지역에 3년간 20개 학교를 짓는 ‘스무고개 스무학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진으로 집과 학교 대부분이 무너져 공부할 곳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구촌공생회가 추진하는 ‘스무고개 스무학교’는 2016~2018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구호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지역인 신두팔촉은 카트만두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오지마을로 지난 4월 발생한 지진으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곳이다. 80년만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신두팔촉 내에서만 5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600여개 학교와 5100여개 교실 가운데 89% 이상은 붕괴되거나 훼손됐다. 특히 신두팔촉 지역은 도유의 손길이 닿기 힘든 산골짜기 오지마을인데다가 대지진 이후 계속된 여진에 우기까지 겹치며 산사태와 도로 유실 등으로 중장기 복구사업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지구촌공생회는 이곳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순차적으로 재건하는 한편 책걸상, 캐비닛, 학용품 등 기자재를 지원해 개교와 함께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줄 예정이다. 재건될 학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네팔 피해 지역 주민들은 방과후 교실을 활용해 서로의 종교와 전통,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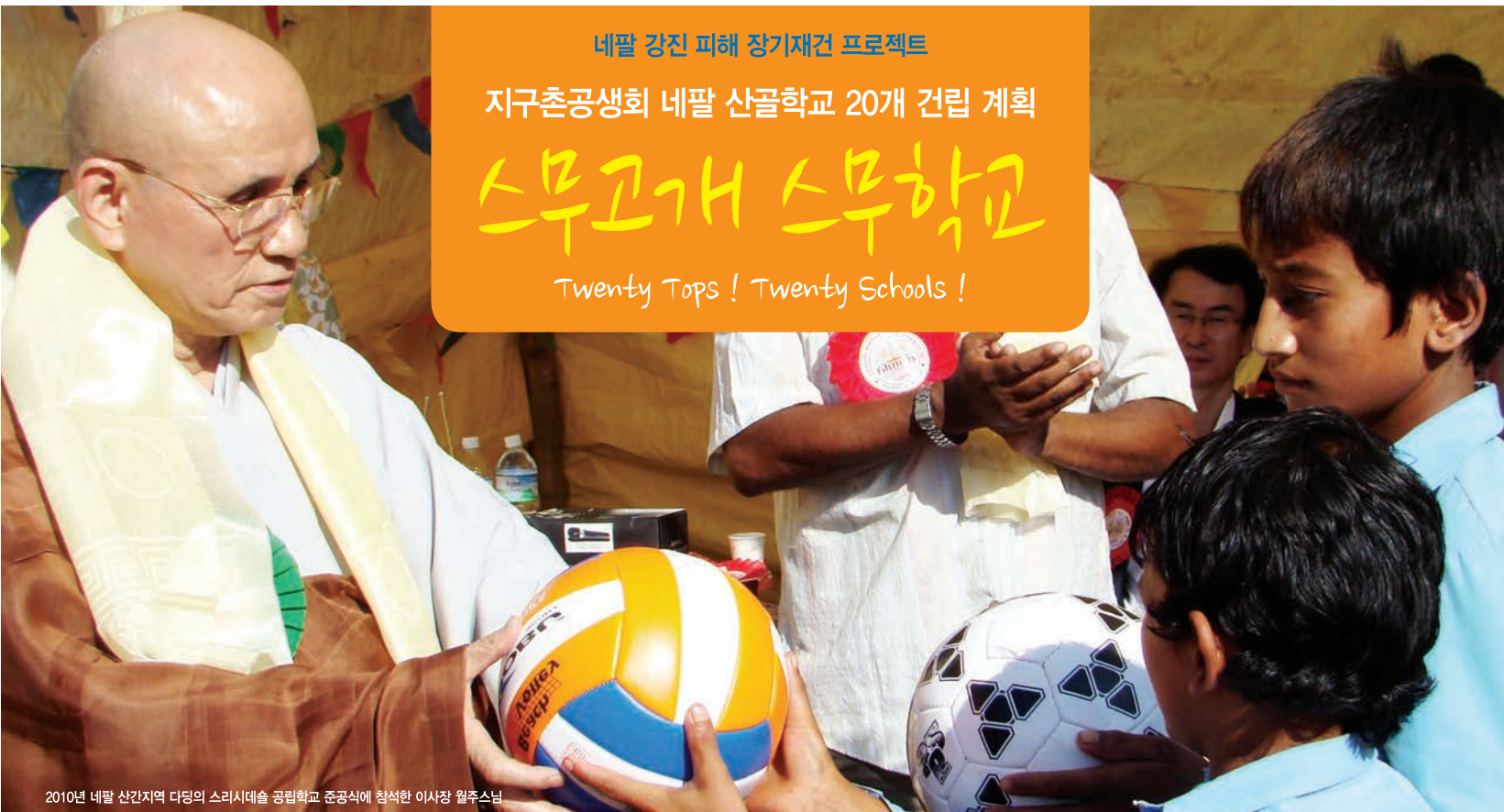
족 문화를 공유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월주스님은 이날 사무처장 덕림스님이 대독한 호소문에서 “애민중생여적자(哀愍衆生如赤子라, 중생을 갓난아기처럼 살뜰히 돌봐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부터 먼저 살피라는 뜻에 따라 갓난아기 돌보듯 강진으로 스러진 네팔에 산골학교를 일으켜 세워달라”며 “네팔 주민과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꿈꾸고 희망을 일굴 수 있도록 관심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스무고개 스무학교’ 프로젝트 예산은 총 10억원이다. 현재(9월15일)까지 네팔 지진 피해 돕기 캠페인을 통해 2억8600여만원이 모금됐다. 지구촌공생회는 지진 직후 네팔 현지 지부를 통해 피해 지역에서 긴급 구호활동을 펼쳐왔으며 오는 10월 룸비니 지역 3개 학교 기공식을 앞두고 있다. 이경민 기자 kylee@bulgyo.com

스위스서 돌아온 ‘범어사 칠성도’ 부산시문화재 된다

4면



네팔 강진 피해 장기재건 프로젝트
지구촌공생회 네팔 산골학교 20개 건립 계획
스무고개 스무학교
Twenty Tops! Twenty Schools!

2010년 네팔 산간지역 다림의 스리시데울 공립학교 준공식에 참석한 이사장 월주스님

너와 나 그리고 세상이 하나임을 깨달아 종교, 민족, 이념의 경계를 넘는 보편적 인류애를 실현하고 기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2003년 前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창립한 국제개발협력 NGO입니다. 11개 빈곤 국가 주민들을 위해 교육지원사업, 식수지원사업, 지역개발사업, 지리정보사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 후원문의 02.3409.0303
■ 네팔 학교재건 돕기 후원계좌
기입은행 062-070908-01-011
사단법인지구촌공생회

■ 함께하는 분들 이사장:송월주(前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금산사·영화사 조실) 이사:자승(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영(금산사 회주), 설타(불광사 회주), 설송(화방사 주지), 도림(학림사 회주), 평생(백련사 주지), 지홍(불광사 회주), 선목(108산사순례지도회 회주), 원행(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지현(청량사 주지), 정년(월정사 주지), 성우(금산사 주지) 감사:월우(대흥사 주지), 정연현 사무총장:원광(삼원암 주지) 사무처장:덕림(관음사 주지) 미국서부지부(지부장 현철스님), 전북지부(지부장 원광스님), 대전지부(지부장 광진스님), 대구지부(지부장 선지스님), 강원지회(지회장 정인스님), 서울서부지회(지회장 송재봉), 인천지회(지회장 박순자), 군산지회(지회장 박순호), 강원영동지회(지회장 권동웅), 그리고 16,600여명의 후원회원과 함께합니다.

국제개발협력 NGO
지구촌공생회
Good Hands

강진으로 스러진 네팔! 산골학교를 일으켜 세웁시다.

지난 4월 25일 네팔은 81년만의 최악의 강진으로 처참히 붕괴되었습니다. 3만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7,800여개의 학교와 36,000여개의 교실이 무너졌습니다. 히말라야에 기대어 삶을 개척해 가던 산간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의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지구촌공생회는 지진으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네팔에 20개의 산골학교 건립을 서원하였습니다. 3,5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장 극심한 피해지역인 신두팔촉 지역에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5칸 이내 학교 20곳 건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골학교를 통해 네팔 주민들과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꿈꾸고 희망을 일구도록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절실합니다. 강진으로 스러진 네팔에 산골학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사)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송월주



스리시데울 공립학교는 산간지역 구호활동을 위한 중요한 구호기구의 역할을 하였다.



지구촌공생회 네팔지부는 카트만두, 신두팔촉, 4월 25일 발생한 강진으로 네팔주민들은 가족 지역에서 6차례 1만여명의 주민들을 구조했다. 과 설의 타격을 입어버렸다.